

'붓다뉴스' 사이버 상담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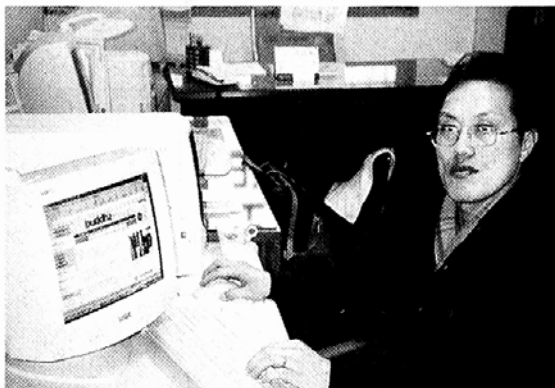
일간인터넷신문 붓다뉴스닷컴(buddhanews.com)이 지난 6월 오픈과 함께 개설한 신행상담코너에 불자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어 사이버 공간의 신행길잡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사찰에 처음 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등 사찰예절에 대한 문의와 함께 삼천배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아 불교 입문자를 위한 사이버 신행상담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

인터넷 상에서 불교를 처음 접했다는 유세일(회사원·서울시 양천구 목동)씨는 "불교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으로 붓다뉴스닷컴 상담코너에 들어왔는데 질문을 하면 즉시 답변이 올라와 불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지금쯤은 수계도 받고 절에도 열심히 나가는 진짜 불자가 됐다"고 말했다.

신행 경력이 많은 불자들의 상담도 많았다. 이들은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차이점, 원시불교의 선악관, 교·선종의 차이점 등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자신의 궁금증을 상담을 통해 해소하길 원했다. 또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고 싶다는 불자들이 불사 후원단체를 소개해달라는 내용도 있어 상담이 불교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실천행으로 연결시켜주는 구실도 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이같은 상담은 특히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려주면서 신행의 구체적인



○서동석 사이버법사가 인터넷 신행상담에 응하고 있다.

청소년·초심자 등 사찰예절·수행법 물어

신속한 답변...봉사단체 실천행 안내도

인 안내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밝힌 박주연군은 "사이버 법사님의 답변을 듣고 불교에 호감을 가지게 됐다"며 "부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불자들이 상담코너를 통해 질문한 내용은 불교용어 및 교리다양했다. 특히 교계 일부 사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상담코너가 관리부재로 활성화되지 않는 것과 달리 붓다뉴스닷컴은 전담 사이버 법사를 두고 초심자와 불심 깊은 불자, 무종교인들에게도 불교에 대한 궁금

증을 자상하게 풀어주고 있어 인터넷 포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붓다뉴스닷컴에서 사이버 상담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불교종지종 복지재단 서동석씨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이버 공간이 또다른 신행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됐다"며 "앞으로 사찰이나 종단에서 사이버 포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붓다뉴스닷컴은 이같은 상담 사례를 분석해 조만간 책으로 묶어 초심자는 물론 신심 깊은 불자들에게 신행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nia.com)

조계종 '케이블카' 반대

한라산·미륵산등 9곳...수행환경 크게 훼손

조계종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림훼손의 주요 원인인 케이블카 설치 반대에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은 19일 제주 한라산, 통영 미륵산 등 9개 지역의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통해 "문화관광부는 관광수단으로서의 케이블카 설치 홍보를 중지할 것과 환경부는 케이블카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조사하여 무분별한 환경훼손을 막는 주무부서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조계종은 통영시 미륵산을 비롯 지리산, 월출산, 해남 두륜산, 울산 신불산, 밀양 얼음골, 남해 금산, 산천 각산, 한라산 등 모두 9개 지역에서 경정적으로 케이블카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들의 경제적인 이익추구 앞에 소중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신아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사찰의 수행

환경 역시 크게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통영시가 추진중인 '미륵도 관광특구 사업계획'의 경우,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 사업으로 통영 미륵산의 생태계와 유서깊은 용화사와 미래사의 사찰환경이 크게 위협에 처해있다는 게 조계종의 우려다. 해발 461m의 산에 관광용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산 정상에 조망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이 계획은 국비 22억 및 도비 3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35억을 들여 관광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통영시는 해발 440m지점까지 수평거리 1,990m, 선로거리 2,040m에 이르는 자동순환식 곤돌리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개의 대형 쇠말뚝을 산허리에 박게 된다.

김재경 기자

장경사 송전탑 노선 바꾼다

한전 계획변경 합의

전통사찰인 장경사 인근을 지나는 고압송전로 건설계획이 6개월여만에 불교계와 지역주민의 노력 끝에 노선 변경으로 마무리됐다.(본지 293호 22면 기사 참조)

경기도 용인 장경사와 용인시 학일리 주민들은 지난 15일 한국전력 관계자와 만나 장경사와 학일리 인근을 지나는 34만5천V 신안성-신원간 고압송전로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노선을 400m 떨어진 학일리, 장경사, 송죽골 인근에는 향후 어떠한 송전선로도 건

설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노선변경과 향후 송전선로 건설공사 후 발생하는 문제는 주민과 한국전력이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된 노선은 장경사로 부터 400여m 떨어진 곳에 건설하기로 해, 장경사와 학일리에서는 산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게 된다.

장경사 주지 정희수님은 20일 "불교계는 물론 지역주민이 뜻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환경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박봉쪼개 노인 위안잔치

광주서부서 불자모임

경향 불교신도들이 박봉을 쪼개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펼쳐 훈훈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 불자모임인 서불회(회장 임희철 경사)는 16일 서구 담배인삼공사 예식장에서 의로운 어르신 120명을 초청, 영정 사진 무료촬영과 음식 공양 등 송년 위안잔치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함림사 조실 천운스님과 무각사 주지 광민, 법륜사 주지 월인스님, 정동계 국회의원, 이정일 서구청장, 임학우 서부경찰서장, '사랑실은 노래봉사단' 단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임희철 서불회 회장은 "회원들의 박봉을 조금씩만 나누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장기기증운동등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주용직 광주지시장

종단소식

조계종

중앙승가대 신입생 모집

종립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중법)는 2001학년도 신, 편입생을 모집한다. 정시모집 '다'군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중앙승가대학교는 불교학과, 역경학과, 포교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4개과에 총 122명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27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이웃종단 스님도 해당되며 종단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가능. (02)921-1910

14교구 신도회장 박수관씨

제14교구 신도회장에 박수관씨(사진)가 선출됐다. 박수관 법어사신도회장은 지난 14일 법어사

법어사에서 열린 제14교구 본말사 대의원 총회에서 제14교구 신도회장에 추대됐다. 박회장은 부산 시민을 위한 불교문화회관이나 불교병원 건립을 위한 기금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고종

선암사 주지에 지허스님

태고종립 선암사 제24대 주지에 정지허스님(사진)이 선출됐다. 15일 선암사에서 열린 운영위원

회에서 만장일치로 주지에 선출된 지허스님은 "총림으로서 종단 수행토도를 조성하고 이끄러가는 수사찰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선원과 강원을 활성화시키고 불심된 탕화의 복원봉사, 설선당과 참파당 등 퇴색한 당우 복원, 상보박물관 개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허스님은 1941년생으로 56년 선암사에서 만우스님을 은사로 득도, 60년 선암사 강원 대교과를 수

료했다. 해인사 통도사 용연사 선암사 등에서 수행하고 선암사 제16대 및 21대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정수원장, 중앙선원장, 중앙종회의원, 선암사 박물관장 등을 맡고 있다.

총무원 사회부장 설운스님



총무원장 종연스님은 20일 총무원 사회부장에 백설운스님(기원정사 주지·사진왼쪽)을, 사회국장에 이혜각스님(파주 약수암 주지·사진오른쪽)을 임명 발표했다.

설운스님은 1946년 전남 여천 생으로 61년 선암사에서 순찰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66년 선암사 강원을 수료했으며 대홍사 주지, 도봉본원장 등을 역임했다.

혜각스님은 1953년생으로 77년 선암사에서 덕암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82년 영화사에서 덕암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수지했으며 83년 선암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보현도량 회장, 태고종 총무원 등을 지냈고 현재 제10대 중앙종회 의원이다

진각종

원명정사등 중앙이사 선임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대표이사 해명)는 19일 총리원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문화사회부 원명국장, 포교부 호당국장, 경전심인당 주교 관전정사 등 3명을 중앙이사로 추가 선임했다. 이사회는 또 2001년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전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청소년지도자 육성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사업 △청소년 연구 출판 교육 상담 및 조사사업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사업 등을 채택 중점 사업으로 정했다.

성탄절 무르익는 '종교화합'

범어사·삼광사 주지 천주교 성당 방문

부산 범어사·삼광사 주지스님들이 잇달아 천주교 부산교구청을 방문해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등 종교화합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은 20일 부산 남천동 천주교 부산교구청을 방문, 정명주 부산교구장을 만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5월 부처님 오신날 정명주 주교 일행이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는 의미로 범어사를 방문한 데 이어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종교간 화합과 종교의 대화적 역할을 모색하는 만남이 되었다.

이날 성오스님은 실록차를 선물로 가져와 크리스마스를 축하했고 정명주 부산 교구장은 불교작가가 만든 화로와 수도회 수녀들이 조각한 초를 선물했다.(사진)

한편 천태종 삼광사 주지 덕수스님은 21일 부산



대청동 부산교구청 가톨릭센터를 방문, 송기인 신부에게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삼광사 총무 이길지 스님, 이종화 신도와 부회장이 동석한 이날 만남에서는 종교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생의 길을 모색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어 덕수 스님은 25일 천주교 부산교구 주교좌 성당에서 정명주 주교 집전으로 열리는 크리스마스미사에 참석 축하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정명주 주교는 "부산에서 불교계 인사가 미사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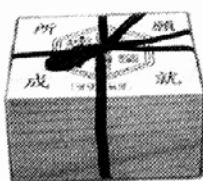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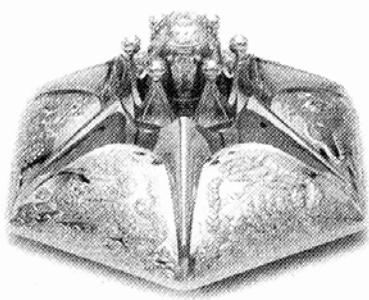


옛 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 청룡(靑龍) (우) 백호(白虎) (남) 주작(朱雀) (북) 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 다하여

소원성취 · 안전행복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 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 했다.



기(氣)란 : 현실이다



◆ 육기방 수호신장(六氣方 守護神將) ◆

좌청룡(靑龍): 천하 4방중에 좌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좌청룡이라 불리워진다. 풍수의 학설에 따르면 청룡에서 발생하는 생기(生氣)는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다.

우백호(白虎): 천하 4방중에 우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우백호라 불리워진다. 우백호의 기세에서는 부자가 나오고 훌륭한 여성이 많이 배출되는데, 딸과 며느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청룡이 남성이라면 백호는 여성이라 말할 수 있다.

남주작(朱雀): 천하 4방중에 남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남주작이라고 불리워진다. 주작의 기세에서는 큰 재산을 모으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주작은 현무와 대칭되는 관계에 있다.

북현무(玄武): 천하 4방중에 북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북현무라 불리워진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주는 생기를 갖고 있어, 현무의 지세가 좋은 지역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배출된다. 현무의 기운은 주작의 기운과 대칭된다.

천하(天下)대장: 천하의 신(神)을 관장하고 지하(地下)대장: 지하의 신(神)을 관장한다. 마을마다 장승이 세워진 뜻은 여기에 있다.

※ 주지스님 천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오.

명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중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집사와 집기를 내쫓고 법점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치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 방이라 한다.

◀ 기(氣)의 중요성 ▶

기(氣)란 현실이다
기(氣)가 약하면 액운이 따르기 마련이고
기(氣)가 강하면 강자가 될 수 있고
기(氣)가 약하면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잃을 것이다.

※ 육기방에 호형은 좋다는 분들이 많다.

◆ 사용처 ◆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 구입처 ◆ 사찰, 암자, 철약관
※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 명당육기(氣) 방: 051) 865-9933
공정: 051) 864-7878
홈페이지: www.6kibang.co.kr

◆ 생각처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나 기적(奇蹟)이나 하는 소리가 많다. ◆